

데스크시각

주목되는 호남 민심



임동욱
서울취재본부장

내년 총선이 6개월도 남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호남 유권자들의 고심도 깊어가는 듯하다. 특히 '조국 장국'을 거치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와 함께 역동성을 잃은 민주당의 모습에 실망감을 보이기도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 이어 4기 개혁 정권 창출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성급한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호남 민심의 지지는 여전히 과반을 훌쩍 넘고 있다. 하지만 지지의 강도는 예전 같지 않아졌다는 평이다.

지역에서의 민주당 진영에 대한 여론도 좋지 않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보다는 일당 독점 구도 속에서 안주하며 오만한 모습마저 보였으니 민심이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민주당

일당 독점 구도의 폐해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지역위원장들도 주목을 끌 만한 정치적 메시지를 내지 못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오로지 지도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듯한 모습이 역력하다. 고공 행진 중인 지지율에 '공천-당선'이라는 공식이 다시 등장하면서 경선 관리에만 몰인하고 있

는 실정이다. 경선의 역학 구도도 기존의 지역위원장 중심으로 형성되면서 정치적 역동성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호남 민심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 역시 아직까지는 '관리 모드'다. 무리하게 변화를 추진하며 호남 민심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중앙당 핵심 관계자는 "4기 민주·개혁 정부 창출을 위해서라도 내년 총선에서 호남 민심이 민주당을 지지할 것으로 본다"며 "특히 이낙연 총리가 내년 총선 이전 당으로 복귀하면 호남 민심의 지지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경쟁 구도를 형성해야 할 정치적 대안 세력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지난 총선에서 호남 민심이 만들어 냈던 국민당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정치연대, 무소속 등으로 분열됐다. 내년 총선 이전에 제3지대 신당이 출범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과연 정치적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제3지대 신당을 추진하는 호남 중진들에게 대한 정치적 피로감이 큰 데다 '중진 용퇴론'과 '세대교체'의 폭풍우가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초·재선 의원들도 판을 다시 짜기에는 정치적 역

량이 미약하다는 평가다. 대선 주자급 인사가 제3지대 신당에 결합하는 등 결정적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정치적 활로를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다시 전략적 선택을

그래도 내년 총선에서 호남 정치는 실질적 전환기를 맞을 것이다. 김대중-노무현을 넘어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하는 상황.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호남 정치의 역동성과 미래 비전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호남 민심의 전략적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몰지 마 지지'가 아닌 정치적 역량과 비전을 토대로 하는 냉철한 선택이 필요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깨어 있는 시민 정신'의 실천이 다시 요구된다.

이제는 멀리 있는 것도 혹은 거창한 것도 아니다. 좋은 재목을 찾기 위해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면 된다. 자신의 길은 스스로 만들어 갈 수밖에 없다. 호남 정치의 미래도 마찬가지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바람을 만들어 내며 한국 정치사를 다시 썼던 호남 민심이 내년 총선 어떠한 전략적 선택에 나설 것인지 주목된다. /tuim@kwangju.co.kr

은편칼럼

동네 바보의 고백



옥영석
농협 하나로유통 단장

지난 20여 년간 주말은 테니스 치는 재미로 살았다. 등산이며 자전거 같은 운동도 좋지만 1~2년 하고 나면 테니스가 지닌 매력만큼 끌리지 않았다. 뉴스를 보고 신문을 뒤적여도 테니스 관련 기사가 있으면 즐겁고 행복했다. 낯선 도시나 야파트에 가도 초록색 천막만 보면 그 안에 테니스장이 있으리니 하는 생각에 반가웠다. 황토바닥 잘 다져 새하얀 라인을 그려 놓은 코트는 어느 그림이나 사진보다 아름답고 사람을 설레게 했다. 눈이 오면 손수레에 눈을 실어 나르고, 비가 오면 모래와 소금을 뿌리는 수고쯤이야 대수롭지 않았다.

늘지 않는 실력에 애타고, 낯꾸이들에게 번번이 지고나면 속상했지만 그때뿐이었다. 사진을 찍어 보면 어정쩡한 자세

수다쟁이 핸센택

이 붙었다" 하면서 핸센택을 타박했지만, 핸센택은 손꼽아 기다렸다. 수다쟁이 핸센택은 요즘 말로 하면 정보를 모아서 분석한 뒤 전달해준 셈이다. 물론 핸센택의 장사는 잘 되었다.

검정 장사라는 만화가 있다. 1970년대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아이들(기철, 기영)이 자라면서 이리저리 치고받는 풋풋한 이야기다. 감정을 가진 게 '뽕구'가 눈길을 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의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자기도 모르게 이야기에 빠져든다. 이야기의 힘이.

1986년 서울 아시안 게임, 폴도 자라지 않던(불모지) 달리기에서 무려 세 종목 우승을 한 임춘에 선수가 있다. '라면 먹고 훈련을 했고, 우유 마시는 동무들이 부러웠다'는 보도에 국민들의 눈시울은 붉어졌고, 임시울(임술)은 들썩였다. 임춘에는 외로워 눈물 나면 달리는 '달려라 하니'가 되었고, 국민들은 이 세상 끝까지 달려겠다는 다짐을 했다. '임춘에 현상'이라고까지 불렀다. 어려워 할턱이던 국민들의 마음을 이야기가 파고들었다.

1997년 대한민국은 경제가 무너져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돈을 빌렸다. 국민들이 일자리를 잃고 힘들었을 때, 골프 선수 박세리는 물에 빠진 공을 치려고 양말을 벗고 채를 휘둘러 우승을 했다. 박세리의 훈련 과정과 정신력은 우리의 마

격적인 플레이가 필요하다. 상대가 두세 수 아래라고 반드시 이기는 것도 아니다. 선수출신이 동호인을 이기는 게 일반적이지만 십 수 년 공력이 무색하게 되지는 반대의 경우도 많이 보았다. 순간적으로 방심해 집중력을 잃으면 아차 하는 순간 게임은 넘어가버린다.

다행히 큰 부상 없이 20여 년을 버텼는데, 나이 오십이 넘어 힘 떨어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무리해선지, 반갑지 않은 테니스 엘보우에 걸렸나. 오른쪽 팔꿈치 바깥쪽이 찌릿찌릿할 때도 통증이 크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넘긴 지 두어 달. 관리를 하지 않고 계속 무리하다 보니 통증이 심해져만 갔다. 주말 아침이면 해뜨기도 전에 코트에 나서는 게 기쁨이었건만 구경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심판을 자청하는 것도 한두 달이지, 운동을 못하니 테니스장과 멀어졌다. 날이되면 날마다 코트에서 걸려오던 전함도 뜬해지고, 주말이면 리모컨만 만지작다다가 해가 저물었다.

어느 집단에서나 승부의 세계에서는 고수가 우위에 있는 법. 그러나 상황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뀌었다. 어쩌다 불려 나간 선술집에서 지난날 하수들은 경의

의 눈초리를 거두고, 복수를 다짐하며 목기 서린 잔을 따랐다. 서브하나 제대로 넣을 수 없는 퇴물에게 지는 일이 없을 거라는 말에 호기롭게 웃어넘겼지만 되돌아보니 그것 또한 내가 뿌린 씨앗이었다. 동네 골목에서나 통할 알량한 실력으로 초보들은 잘 상대해주지 않았고, 게임에 진 상대방에게 당연한 고수처럼 굴었으니 서너 번씩 당해본 사람이면 좋은 감정이었을 리 없었던 것이다.

그 몇 달의 지루하고 긴 시간을 지나서야 라켓 들고 필 수 있는 건장과 시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 것이었는지 알게 되었다. 엘보우는 바로 욕심 내지 말고 쉬어가라는 경고였고 자신을 뒤돌아보라는 메시지였던 것이다. 지난 20여 년간 나는 스스로를 꽤 괜찮은 스포츠맨으로 알았다. 우습게도 그건 나만의 생각이었고 자만이였다. 한두 달이 걸릴지 내년 봄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코트에 나서면 잊지 않으리라. 테니스는 매너의 스포츠이자 혼자만의 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걸로만 지키는 예의와 매너만으로는 진정한 스포츠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제라도 알게 된 것에 감사하면서.

다. 비난은 빠지고! 술자리에서 판을 치는 아슬아슬한 무용담에 참과 거짓을 가리려 다들 일 아니다. 잘 옆으면 우스꽝스런 이야기가 된다. 성취적이고 업신여김은 빠지고! 이제는 아무런 이야기를 아무렇게 낱돌 일 아니다. 잘 다듬으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을 만들 수 있다.

일터에서 흥난 보고 끝나면 인승무래기(어리석은 사람)가 되지만, 교훈을 얻으면 멋진 놈이 된다. 술자리에서 비난과 뒷담화만 일삼으면 쪼다가 되지만, 깨달음을 얻으면 북대잡이(리더)가 된다. 아이들이 욕을 입에 달고 산다고 야단만 치면 언더리(어벌쩍한 사람)가 되지만, 고민 해결책을 보면 스승이 된다. 무식하게 떠든다고 투덜거리기만 하면 떠버리가 되지만, 잘 들으면 길을 찾는다.

배운 사람들은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이라 한다. 모든 이야기는 잘 모아서 정리하고 분석한 뒤, 풀어내면(알고리즘) 새로운 스토리텔링이 된다. 스토리텔링은 웃음 속에 생각을 담고, 내 일상에서 교훈을 찾고, 감동을 주는 일어서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야기로 사업의 실마리를 찾고, 스토리텔링으로 산업의 꼬투리를 잡을 때다. 말 못하다 죽은 귀신이 붙었으면 좀 어떠려, 돈이 된다는데. 핸센택이 지금 살았더라면 어마어마했겠다. 허허, 참.

社說

식자재마트 확산 골목상권 위협 대책 없다

최근 광주 도심 곳곳에 식자재마트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면서 골목 상권을 위협하고 있다. 대형 마트보다 규모는 작지만 가격 경쟁력이나 상품성, 우수한 접근성을 무기로 고객들을 끌어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3000㎡ 이상 규모의 대형 마트와 대기업 계열 점포인 기업형 슈퍼마켓은 전통시장 반경 1km 내에 입점할 수 없으며, 한 달에 두 번 의무 휴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자정부 터 오전 10시까지의 영업이 금지된다. 반면 최근 상업 중인 식자재마트는 점포 면적이 600㎡ 이상~3000㎡ 미만으로 대형마트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탓에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식자재마트는 당초 자영업자들이 농·축·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도록 만든 마케이지만 일반 소비자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각종 물품을 포장 단위로 구분해 시중 매장보다 산 값

에 공급하며, 연중무휴로 늦은 시간까지 영업하거나 24시간 운영하는 곳도 있다. 이처럼 사실상 대형 마트 역할을 하는 식자재마트가 광주에만 200여 개에 이른다. 이 중 면적 1000㎡ 이상, 하루 매출 3000만 원대의 점포만 30여 곳이라고 한다. 광산구 송정매일시장 인근에는 도보로 10분 거리에만 세 곳이나 있다.

이처럼 식자재 마트가 번성하다 보니 전통시장과 주책가 영세 상인들은 폐업을 고민해야 할 정도로 매출이 감소되고 있다며 아우성이다. 그런데도 광주시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 대구시가 2015년 전국 처음으로 전통시장과 골목 상점가 1km 이내에 식자재마트 등의 진입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식자재마트가 갈수록 대형화하고 그 숫자도 크게 늘어 골목 상권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이제 광주시도 규제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내년 지역 현안 사업 예산 깎이지 않도록

광주·전남 지역 내년도 핵심 현안 사업의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자유한국당이 관련 사업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당 정책위원회를 통해 작성한 '2020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에 광주·전남 주요 현안사업을 다수 포함시켰다고 한다.

목포에 신설될 예정인 '해양경찰 서부 정비창' 신설 사업이 대표적인 예다. 전남 지역은 전국 섬의 65%가 몰려 있을 정도로 해양안전관리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이다. 따라서 서부 정비창 신설로 인근 해역 경비정 정기 수리뿐 아니라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단속, 해양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해 왔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 사업의 내년 사업비로 편성된 81억6900만 원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또 광주의 핵심 현안인 인공 지능 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조성 사업도 삭감 대상으로 짚었다.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된 사업이라고

하지만 인공지능이라는 융합 기술을 빌미로 타 지역 전략 산업까지 연구하겠다는 건 '국가 균형발전 계획' 취지에 어긋난다고 적시한 것이다.

5·18 진상규명위원회 예산도 손을 댈 기미다. 한국당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위원 구성이 늦어지고 있는데도 정상적인 활동 시작 시기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예산 증액에 대한 조정 입장을 밝혔다.

광주의 '청년 일 경험 드림'과 전남의 '마을로 프로젝트' 등 전국에서 진행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도 삭감을 버리고 있다.

이처럼 한국당의 예산 삭감 방침에 따라 광주·전남 현안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따라서 광주와 전남도가 지역 국회의원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이들을 설득시킬 적절한 논리를 개발함으로써 현안 사업들이 국가 계획과 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로 대한민국이 좀 조용해지나 싶었는데 여전히 시끄럽다. '조국 사수'와 '조국 퇴진' 두 진영으로 나뉘어 팽팽한 세 대결을 벌였던 광장의 목소리도 잦아드나 싶더니 또다시 시작이다. 조국 장관이 물러났는데도 여전히 한쪽에서는 '검찰 개혁, 공수처 설치'를, 또 한쪽에서는 '공수처 반대'와 '문재인 대통령 퇴진'까지 주장하며 세 대결을 펼치고 있다.

자유한국당 또한 조국 사퇴를 이끌어 낸 '승리'를 발판 삼아 여전히 광장의 여론을 이끌어 방위투쟁을 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이후 위축됐던 보수 세력을 결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해서 일 것이다. 그동안 정체해 왔던 정당 지지율이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상승함에 따라 이 기회를 살려 내년 총선 지지로 이어지도록 해 보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하지만 광장의 여론은 귀를 열고 듣는다. 광장에서 정당이 앞장서 국민을 선동하는 정치를 계속해서 안 된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이 개인 자격으로 집회에 참석한다고는 하지

만, 이들이 당 지도부를 맡고 있는 만큼 자유한국당이 '광장 정치'를 여전히 하고 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당이나 국회의원도 국회 밖에서 행하는 각종 정치적 투쟁을 '장외 투쟁'이라고 한다. 자유한국당은 황 대표 선출 이후 지속적인 장외투쟁을 이어 왔다. 황 대표는 현역 의원이 아닌 만큼 국회에서 얼굴을 알리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국회 밖에서 여론을 이끌며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 했을 수도 있다. 이게 바로 그가 장외투쟁을 선호하는 이유일 수 있겠으나, 광장의 뜻을 한데 모으는 것은 정부와 정치인들의 몫이다.

대의기관인 국회에서가 아니라 거리에서 충돌하는 모습은 사실상 정치의 실종과 부재를 의미한다. 그래서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다음 달부터 예산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동안 광장을 선동하며 직무를 유기해 온 여야는 이제부터라도 국회 내에서 그동안 잠자고 있는 민생 법안과 민생 예산 등을 쟁야 할 것이다.

/최원철 정치부 부장 cki@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주 11(광간)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220-0652	체육부	220-0633	디자인실
220-0642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